

“참다운 인간이 되는 길, 유교에 있습니다”



성균관

최근 덕 관장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공동대표(현)
유교학술원 원장(현)
유교학회 이사장(현)
울곡학회 회장
성균관대 유학과 교수

현대사회는 욕망과 경쟁으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의예지의 유교사상 등 동양철학이 주목받고 있다. 얼마 전 외국 단체로는 처음으로 중국 정부에서 수여하는 ‘2012 공자문화상’을 받은, 한국 유교문화의 본산 성균관에서 유교의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최근덕 관장을 만났다.

성균관과 유교에 대해 어렵듯이 알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성균관은 고려말과 조선시대에 인재양성을 위해 유학교육을 담당했던 최고의 국립대학으로, 그 기원은 372년 고구려에 세워진 태학입니다. 현재 성균관은 전국 234개의 향교와 더불어 유교사상과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산실로서 그 맥을 잇고 있습니다.

유교는 옛날 중국 공자가 체계화한 사상인 유학을 종교적 관점에서 이르는 말로, 그 근본 사상은 인(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仁)이라는 한자는 사람 인(人)과 두 이(二)가 합쳐진 말인데, 이는 애인(愛人), 즉 사람 간의 사랑을 뜻합니다. 유교의 사랑은 다른 종교와는 달리 자기로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까지 확산시키는 개념입니다.

유교는 아무래도 현대사회와는 어느 정도 동떨어졌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성균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성균관은 ‘유교 현대화 3대 지표’를 정해 현대사회에 적용 가능한 윤리도덕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교 경전의 대중화’로, 유교 경전을 번역하여 일반 독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유교 이론의 현대화’입니다. 공자의 모든 가르침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유교의 근본 사상인 인(仁)이나 오륜(五倫) 등 큰 줄기는 바꿀 수 없겠지만, 그 외의 세세한 유교의 가르침은 시대상황에 맞게 변화시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교의 가르침을 현대사회에 알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유교 윤리의 생활화’로, 유교 윤리를 가정 등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교는 절대자가 아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행하는 종교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지금의 교육은 인성이 아닌 입시를 위한 목적에만 치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교육여건 속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할 유교 사상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인간 사회의 기본적 윤리인 오륜(五倫), 즉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중 군신유의는 국가는 정의로워야 하고 국민은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며, 부부유별은 남녀 차별의 개념이 아니라 부부에게는 각자의 역할이 있으므로 서로를 존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노인을 경시하고 부모를 소홀히 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노인을 공경하고 효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늙은이를 공경하고 어버이를 공경하는 경로효친(敬老孝親) 사상이 희박합니다. 이는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그 부담을 젊은 사람들이 짊어 져야 되는 현실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지금의 세대를 위해 사회를 지탱하고 발전시키고 넘겨 준, 우리를 여기 있게 한 소중한 존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그 실천이 본능적이나, 자식의 부모에 대한 효도는 그에 필적하지 못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 덕분에 태어났고 부모의 희생적인 수고로움과 절대적인 사랑으로 길러 졌으므로 부모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 것이 인간이 해야 할 마땅한 도리라고 할 것입니다.


현대는 전통사회의 여러 좋은 덕목들이 해체되고 개인주의와 함께 자본주의로 인한 물질 만능주의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사회는 높은 자살률, 흉악한 범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현대는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 물욕이 생기고 편리성을 추구하게 되었으나, 이로 인해 윤리의식이 사라지고 있고 인류는 타락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만을 추구하다가는 인류는 끝내 멸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 우선의 가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약해진 정신적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교는 인간을 주체로 하는 인본주의 사상이므로, 유교에 기반한 교육 인프라를 잘 활성화시킨다면 현대의 기계 문명, 물질만능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상실되어 가는 인간성을 회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과거에 기자생활을 하신 적이 있으시고, 현재는 유교방송의 개국을 준비하는 등 언론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대해서 평소 가지고 계신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언론에서는 구독률이나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독자나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이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흥미 위주의 선정적 보도를 지양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다뤄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종교 내부에서는 다른 분야보다 더 많은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종교의 부패하거나 어두운 면을 부각시키는 보도를 할 경우 더욱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언론  사람」 독자들을 위해 삶에 좋은 지표로 삼을 만한 한자성어를 하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는 추기급인(推己及人)으로, 이는 ‘나를 미루어 남에게 미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을 헤아려야 하며,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역지사지와 같은 의미로 상대방과 입장을 바꿔보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진행 / 이진숙(홍보팀장) • 정리 및 사진 / 이재범(홍보팀 차장)